



Thank You

Dear, CMS 선생님들께

남편이 미국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저희 가족은 휴스턴에 오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가는 것도,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야 했습니다. 한참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할 나이인 아이가 집에서 엄마와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걱정도 많이 되고,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.

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가,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2021년 5월에 아이를 기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. 한국에서도 기관을 다녀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익숙한 한국말을 쓰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기관 몇 군데를 직접 다녀보고 그 중 CMS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.

아이가 처음으로 가는 기관이었고, 부모와 떨어져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. 등원하는 첫날, 아이를 떨어져 보낼 때 울컥해서 눈물을 참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.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, 그리고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는 첫날부터 CMS 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CMS에 가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 하였습니다.



Thank You

특히 하루 일과를 예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 한 일이
있습니다. 아이가 집에 와서 배운 기도를 종알거리고, 성경구절을 암송해
줄 때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. 저와 남편은 아이가 주님 안에서
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랐는데, CMS를 통해서 아이가 저희 기도대로 하
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
다.

그리고 아이가 CMS에서 배운 것들을 저희에게 설명해주고, 선생님의
말과 행동을 흉내 내며 이야기할 때마다 평상시에 선생님이 얼마나 다정
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해주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처음에 CMS에 보내면서 큰 욕심 없이 그저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들
과 즐겁게 생활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배우며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매
달 초에 주시는 뉴스레터를 보고 또 한번 감사했습니다,

모든 수업이 큰 주제 안에서 말씀과 잘 접목되어지고 미리 어떤 활동을
할 것인지 글뿐만 아니라 사진들과 함께 제시되는데 체계적이고 아이들
수준에 맞춰서 잘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

Thank You

저희 아이는 다양한 미국의 문화체험 뿐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하며 미술활동, 과학활동, 수학활동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몸과 지혜와 영혼이 너무나도 많이 자랐습니다. CMS를 통해 아이가 쌓은 든든한 토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과 다른 언어를 쓰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걱정도 되지만 CMS에서 보고, 배우고,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.

항상 큰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Sincerely,

이장현